아름다워 고초 겪은 '지광국사탑' 제자리로 돌아가다

성보유랑 聖寶流浪

④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1911년 日人 의해 일본 반출
한국전쟁 폭격 파손 등 고난
국립문화재硏 5년간 보존처리
모르타르 제거 · 결실부재 대체
112년 만에 고향인 원주 회귀
현재 법천사지 전시관서 소장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24년 11월 12일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열린 지광국사탑 복원 기념식에서 복원된 승탑을 내외빈들이 둘러보고 있다. 지광국사탑은 승탑의 하중을 지탱하고 진도 7규모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면진대 위에 복원 · 설치됐다.

화려했기에 온갖 수난과 고초를 겪었던 성보유산. 바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국보·이하 지광국사탑)이다. 지광국사탑은 고려 문종 때 왕사와 국사를 지냈던 지광 국사 해린(984~1070)의 승탑(부도)이다. 승탑의 주인인 지광 국사 해린은 원주가 고향인 고승으로 법천사에 출가해 명성을 쌓은 뒤 고려 왕실 및 문벌귀족의 후원을 받아 개성 헌화사의 주지가 돼 법상종 교단을 이끌었다.

지광국사탑은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 있고 화려한 승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탑을 일명 '승탑의 백미'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탑, 오욕의 역사를 겪다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았던 만큼 지광국사탑은 근현대시기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지광국사탑이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를 떠나게 된 시기는 1911년이다. 일본인 모리 무라타로라는 인물이 무단 반출했고 와다 쓰네이치가 탑을 매입했다. 와다 쓰네이치는 당시 서울 명동의 자신의 개인 병원에 조경용으로 탑을 전시했다.

이후 와다 쓰네이치는 1912년 탑을 남산 기슭의 저택으로 탑을 옮겼다가, 다시 일본 오사카 귀족에게 팔아 불법으로 반출시켰다. 오사카 귀족은 지광국사탑을 자신의 가문 묘지 정원 장식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를 안 조선총독부가 반환명령을 내리면서 와다는 탑을 돌려받아 조선총독부에 기증했다.

그래도 지광국사탑은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는 갈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린 경복궁의 장식재 구실을 하기 위해 옮겼기 때문이다. 실제 탑은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나옹 화상)사리탑(1기) △개성 남계원지 7층석탑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1기) △이천 안흥사지 5층석탑 △이천향교 5층석탑과 함께 공진회 야외공간에 전시됐다.

해방 이후 6·25한국전쟁은 지광국사탑에 치명상을 안겼다. 1951년 지광국사탑은 폭탄에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이 파손됐다. 당시 피폭으로 탑의 상륜부와 옥개석은 1만2000여 조각으로 쪼개졌다. 전쟁 이후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원기술자 고 임천 선생이 탑을 복원·수리했고, 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자리를 잡았다.

해체보수로 새로운 모습을

이후 지광국사탑은 2005년과 2010년 시행된 정기조사와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2015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다수의 균열과 모르타르(mortar) 복원 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다. 특히, 모르타르로 복원된 옥개석(屋蓋石)과 상륜부는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석탑의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면서 2015년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보존처리가 결정됐다. 이에 자광국사탑은 2016년 3월 22일 해체보고식을 갖고, 4월 5일 해체가 완료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유산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확인한 석탑의 상태는 심각했다.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957년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한 부분이었다. 전체 탑의 10.6%가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됐으며, 상륜부와 옥개석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옥개석의 경우 48%가 복원 부재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사용됐다. 또한 이를 지탱시키기 위해 59개의 철심이 탑에 박혀 있었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이후 경복궁에 설치된 조선총독부박물관 야외공간에 전시된 지광국사탑.



한국전쟁은 지광국사탑에 치명상을 입혔다. 당시 피폭으로 상륜부와 옥개석이 1만2000여 조각으로 쪼개졌다.

석탑의 풍화도 '중간에서 높은 단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백화와 흑화 현상도 상당히 진행됐으며, 탈락·박리·생물 피해·조류 배설물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센터는 모르타르 제거, 파손 부재 접착을 비롯해 결실된 부재들에 대해 새 돌로 제작하는 등의 보존처리를 진행했다. 결실돼 없어진 부재에 대해서는 신석재로 새로 제작했고, 파손부재들은 접착했다.

또한, 탑신석 사리공에서 발견된 옥개석 파손부재 조각과 법천사지에서 발굴된 하층 기단갑석 조각을 과학적 조사와 고증을 거쳐 원래 위치에 복원했고, 1957년 수리 당시 잘못 복원된 옥개석의 방위와 추녀 위치를 바로잡는 등 과학적·인문학적 융복합 연구를 통해 지광국사탑의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보존 마친 탑, 제자리로

지광국사탑 보존처리를 위한 해체가 이뤄지면서 함께 논의된 것이 탑의 환지본처였다. 보존처리가 본 궤도에 오르자 문화재위원회(현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는 2019년 6월 원주 법천사지 이전을 결정했다. 보존처리가 완료된 지광국사탑의 부재들은 2023년 8월 1일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이송됐다. 탑의 부재들은 복원 위치가 확정될 때까지 기획전시 공간에서 상설 전시됐다. 지광국사탑의 무단반출이 이뤄진 후 112년 만에 환지본처가 이뤄진 것이다.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탑의 복원 위치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보존처리가 끝난 자광국사탑의 복원 위치를 두고 그간 승탑의 원래 자리이던 승탑원에 보호각을 세운 후 그 안에 복원하는 방안과 법천사지 안에 건립돼 있는 유적전시관 내부에 설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돼 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승탑원이 지형상 24톤에 달하는 지광국사탑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점과 보호각을 추가로 세워야 하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내진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지광국사탑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복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승탑 부재들을 조립해 최종적인 복원이 이뤄진 것은 2024년 11월이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원주시는 그해 11월 12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복원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112년, 1975㎞의 유랑을 마친 성보 지광국사탑은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마련된 자리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승탑의 귀환은 해외로 반출됐다가 박물관에 수장된 성보유산이 지방자치단체, 불교계, 지역 시민사회의 힘으로 환지본처된 모범사례다. 일제에 의해 자리를 떠난 불교의 성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기에 현재 본래 자리를 떠나 박물관 소장품으로 활용되는 성보문화유산들의 제자리 찾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시즌 추천도서

묘선, 관음이 되다

경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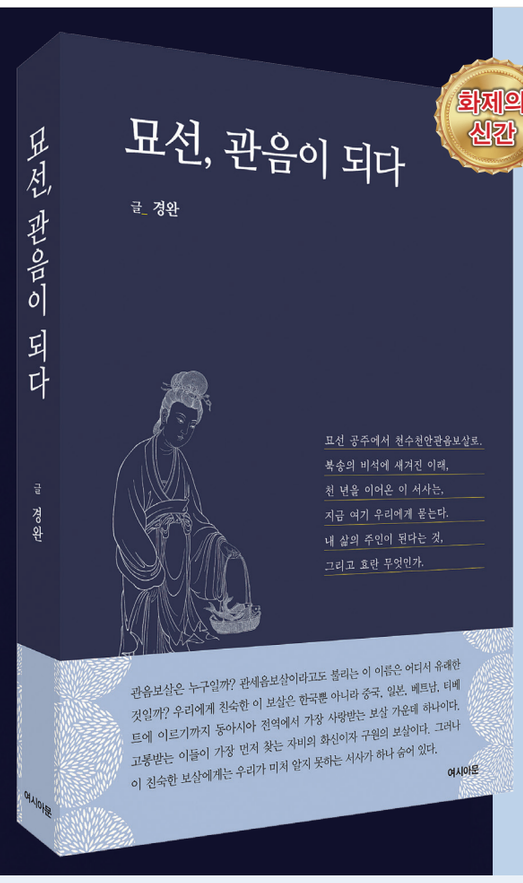
천 년이 서사,관음이 된 한 공주의 이야기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혼인을 거부하고 수행의 길을 택한 묘선.
자신을 죽이려 한 아버지를 위해
눈과 손을 내어준 극한의 자비.
그녀는 마침내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이 되었다.

「묘선, 관음이 되다」는
관음보살 여성화의 기원을 추적한
국내 최초의 본격 연구서입니다.





왜 관음보살은 여성의 모습이 되었을까?

동아시아 관음신앙의 뿌리를 추적한
국내 최초 '묘선 공주' 본격 연구서

✓ 「향산대비보살전」 비문 국내 최초 완역 수록
✓ 묘선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한국어 단행본
✓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정묵 스님 추천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추천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중국 항산에서 시작된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_ 정묵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묘선 서사의 깊은 울림을 오늘의 독자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연구 성과다"
_ 주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이 책의 다섯 가지 포인트

❶ 관음보살 여성화의 서사적 변용을 추적하다
❷ 묘선 서사를 빚어낸 세 갈래 뿌리를 풀다
❸ 여성, 구원의 대상에서 수행의 주체로
❹ 효(孝)와 출가, 두 가치의 화쟁(和諍)을 읽다
❺ 「향산대비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다

책 정보
저 자 경완 스님
규 격 변형국판(148*210)
발행일 2026년 5월 15일
페이지 296쪽 | 값 18,000원 | 출판사 여시아문
ISBN: 978-89-87067-53-7 (03220)

구입 문의 여시아문 ☎ 02-732-1520 www.mahamall.co.kr

관음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